

**제 3 회 PT & Critic: 윤병주 개인전 <화성>에 부처
글. 김인선(윌링앤딜링)**

2014 년 PT & Critic 프로그램을 위한 심사일정이 마련되었다. 기성 작가 및 큐레이터의 추천을 받아서 접수된 새로운 작가들의 포트폴리오 심사를 통해 전시할 작가를 선정하여 첫 개인전을 지원하는 방식과는 조금 다르게, 올해는 최종 개인전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추천된 작가들 모두작가, 기획자 등 기성의 예술 종사자들과 사전 크리틱 자리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방식을 취한 것은 포트폴리오라는 평면적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없는 작품에 대한 작가들의 진정성 있는 발언을 직접 듣고 판단하고자 하는 의도이기도 하다. 논의 끝에 강석호 작가가 의뢰한 몇 분의 작가들이 추천한 총 10 명의 학생 및 신진 작가들을 대상으로 우선 직접 프리젠테이션을 하도록 하였다. 2013 년 10 월이었다. 이날 프리젠테이션을 했던 10 명의 신진 작가들에게 총 6 명의 추천인 및 심사위원들이 크리틱을 가졌다. 그리고 윤병주와 천창환, 2 명의 작가가 선정되었다. 이들은 각각 2014 년 2 월과 7 월에 개인전을 가지게 되었다.

이 사전 크리틱을 진행하면서 우리는 작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에 주목하였다. 추천된 작가들이니만큼 상당한 수준의 작업들이었으나 자신의 작업에 비해 지나치게 거대한 단어를 사용하거나 잘못된 언어의 활용을 구사하는 프리젠테이션의 방식을 지적받는 작가들이 많았다. 이 프로그램이 작품으로서 보여주는 가능성 외에도 자신의 작업 프리젠테이션에 큰 비중을 차지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언어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작가의 언어에 집중했던 것은 ‘현대미술’ 이라는 것이 동시대 관객들간의 동조가 함께 할 때, 혹은 적어도 작가가 왜 혹은 무엇을 만들어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면, 전시를 만듦에 있어서 그 작품의 진가가 드러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또한 작가들은 앞으로 시작될 길고 긴 작가로서의 여정 속에서 자신의 작업을 궁금해하는 이들에게 스스로 표현하고 있는 언어를 납득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 여러 종류의 질문들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작가의 의도를 굳이 공언하지 않더라도 스스로가 자신의 작업에 대한 객관화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이 또한 작업 과정의 하나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윤병주 작가의 언어는 명확했다. 이제 막 30 대 초반으로서 활동을 시작한작가는 그의 작업을 일종의 놀이처럼 작업 과정을 스스로 즐기는 듯 보인다. 경기도 화성을 촬영하게 된 계기가 버스를 타고 서울-화성을 오가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우주의 화성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그가 보여주고자 하는 <화성>의 두가지 의미의 단어-우주의 행성인 ‘화성’ 과 경기도 지역명인 ‘화성’ -는 단순 명료하다 싶을 정도로 이를 보여주는 방식과 장치가 선명하게 그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미지의 것을 찾아다니는 탐험가처럼 주변의 구석 구석을 관심있게 들여다본다. 관객들이 작가의 작업이 보여지기까지의 과정을 유난히 궁금해하는 이유도

이러한 작가의 태도가 그대로 전달되어 함께 이미지를 들여다 보며 탐험하게 되는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윤병주 작가는 사진을 전공하였다. 그는 화면으로 생산된 이미지를 통해 사람들이 인지하는 시각적 정보의 오류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초현실주의 작가 르네 마그리트의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를 연상하게 한다. 화면 속에 보고 있는 페인팅 이미지는 실제 파이프로서 존재하기 위한 수 많은 정보들이 존재하는 반면 수많은 정보들이 이것은 파이프가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이미지 아래에 그려진 문장 “Cecin’ est pas une pipe” 자체도 개념적 존재의 조건이 드러나기도 하는 동시에 존재의 모순을 드러낸다. 윤병주의 전시 속에서 작가는 이 장소가 우주일거라는 인식을 유도하는 장치를 계속 제시한다. 가령 의도적으로 붉은 색 톤을의도적 추가, 우주비행사의 인형들의 연출, NASA 와 우주비행사들간의 대화의 차용, NASA 홈페이지의 텍스트 발체, 박물관 형식의 설치 요소 등이 그렇다. 이들은 인식의 굴레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조건을 만들어내고 있으나 동시에 자세히 살펴보면 이내 해당 장소의 진실을 알아챌 수 있는 정보 또한 감추지 않는다.

작가는 최근 이 〈화성〉 시리즈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다. 이 작업은 4년여의 시간을 들여 관찰하고 이미지를 잡아내고 수정해 가면서 처음의 의도와 달라지고 있는 작업 개념도 모두 수용하며 이 시리즈를 완성하였다. 사진을 공부하였으나 설치와 영상이 함께 포함되었고 이들이 어설픈 부수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법 잘 어우러진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에게 이미지는 어떤 이야기 속에서 어느 특정 시간대에 잡힌 사건의 찰나를 보여주는 정보 이상의 것이다. 이미지 자체를 사진 뿐 아니라 어떠한 형식으로든 다룰 수 있고 이를 실제로 혹은 허구로 인식하게 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 시작된 작가의 탐험은 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 전시 기간 내내 작가는 그의 호기심이 발동된 특정 지역을 언급하였다. 그는 어린 아이처럼 들떠서 새로운 놀이터에 대한 상상을 이미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다.